

국제갤러리, 6월 17일 다니엘 보이드 개인전 《보물섬(Treasure Island)》 개최

기자간담회: 2021년 6월 17일(목) 오전 11시

전시기간: 2021년 6월 17일(목) - 8월 1일(일)

전시장소: 국제갤러리 K1, K2

*"나의 작품은 모두 '나'라는 사람에 대한 고찰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이루는 선조들의 존재로부터 시작합니다
다(All of my work is about, and starts with who I am, and they(my ancestors) are part of who I am)."*

- 다니엘 보이드

국제갤러리는 오는 6월 17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점에서 호주 작가 다니엘 보이드(Daniel Boyd)의 개인전 《보물섬(Treasure Island)》을 개최한다. K1과 K2 공간을 아우르며 신작 회화와 영상 작업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지난 2019년 부산점에서 열린 《항명하는 광휘(Recalcitrant Radiance)》전에 이어 국제갤러리가 개최하는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이자 서울에서의 첫 전시다. 그간 작가는 작품을 통해 호주의 탄생 배경 등에 대한 기존의 낭만주의적 개념을 경계하고 의심하며 서구의 일방적인 역사관이 놓친 시선을 고유한 미술적 방식으로 복원해왔다. 이번 서울 개인전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 현 세계의 질서를 재고하는 다니엘 보이드의 이러한 작업관을 문학과 대중문화 그리고 사적 역사 등을 화두로 적극적으로 반영한 25여 점의 신작들로 구성된다.

본 전시에 원천적 주제를 제공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소설가 겸 시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Robert Louis Stevenson, 1850-1894)의 소설 『보물섬(Treasure Island)』(1883)은 작가의 초창기 작업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호주 식민지 역사의 영웅으로 추앙 받아온 제임스 쿡 선장과 조셉 बैं크스 경을 '해적'으로 재해석한 초기 연작 <No Beard>(2005-2009)가 그것이다. 이번 전시 역시 소설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보물섬의 지도를 그린 <Untitled (TIM)>과 스티븐슨의 초상을 담은 <Untitled (FAEORIR)>, 그리고 시드니 대학교 차우 착 윙 박물관(Chau Chak Wing Museum)의 소장품인 스티븐슨의 개인적인 물건들에 기인한 신작 회화들로 다채롭게 꾸려진다. 특히 작가는 스티븐슨이 한때 소유하고 사용했던 화려한 색상의 접시에서 강한 영감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그는 소설 『보물섬(Treasure Island)』(1883)을 포함, 인류학적 소장품의 궤적을 쫓고 서로 다른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등을 살피며 시공간을 초월한 다각화된 시점에서 풀어낸 작업을 소개한다. 작가는 차우 착 윙 박물관에서의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설치작 <Pediment/Impediment>(2020)를 해당 기관의 현대미술 프로젝트 일환으로 6월 27일까지 선보인다.

한편 보이드는 남태평양의 역사와 영화적 재현을 긴밀히 연결하는 실화인 1789년 '바운티호(HMS Bounty)의 반란' 사건을 차용한 작품들도 선보인다. <Untitled (POMOTB)>는 이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한 MGM사의 블록버스터 영화 <바운티호의 반란(Mutiny on the Bounty)>(1962)의 포스터 이미지를 담고 있다. 작가는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 타리타 테리파이아(Tarita Teri'ipaia)를 담은 전작(<Untitled (TBONSSWM)>, 2020)을 통해 규범화된 미(美)의 관념과 대중문화에 드러나는 재현 방식에 대해 이미 고찰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도 바운티호 복제선의 뱃머리에서 얻은 나무조각으로 프레임한 거울 조각 작품 <Untitled (AMMBGWFTB)>와 복제선을 직접 표현한 회화 작품 <Untitled (FFITFFF)>를 선보이며 동일한 맥락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작가는 이러한 주제의 탐구를 통해 특히 영화, 문학, 대중문화를 통해 유럽 중심적 관점으로 기술된 정형화된

역사가 어떤 방식과 과정에 힘입어 보편성과 견고함을 확보해 왔는지를 제시한다.

더불어 이번 전시에서는 오랫동안 역사적 서사에서 제외되어 온 작가의 가족과 조상의 존재를 프레임의 중심으로 이끌어낸 신작 회화들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추적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서사를 확장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Untitled (GGASOLIWPS)>는 1928년경 폴 섉스턴(Paul Sexton)과 함께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탐사(Great Barrier Reef Expedition)에 참여한 작가의 증조부, 해리 모스만(Harry Mossman)이라는 인물을 담고 있다. 모스만은 호주 정부가 원주민 어린이들을 강제로 가족들과 분리시킨 정책 및 그 희생자를 지칭하는 '도둑맞은 세대(Stolen Generation)'에 속한다. 또 다른 작품 <Untitled (TDHFTC)>에서는 역사를 관통하여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변화를 거쳐 전수된 전통 춤의 공연을 준비 중인 작가의 친누나의 모습을 재현한다. 이처럼 작가는 자신의 사적 역사에서 길어 올린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개인의 경험 및 유산에 기대어 역사를 이해하는 기존의 관점을 재고하는 작업을 이어간다.

지난 2019년 전시에서도 밝힌 바, 다니엘 보이드의 회화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불룩하고 투명한 풀(glue)로 찍은 점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재현한다. 작가는 "이 렌즈는 우리가 하나의 집단으로서 세상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방식, 즉 복수성(plurality)과 다양성(multiplicity)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각각의 점은 흑과 백, 어둠과 빛 사이에 계산화 된 정보를 시각화해 전달하고, 점을 둘러싼 검고 불투명한 부분은 기억이 소실된 역사적 경험을 자각하고자 하는 노력을 내포하고 있다. 이로써 관람객은 작가가 의도한 양과 음 사이의 영역, 정보와 비정보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작품을 이해하며, 과거와 현재 사이의 시점을 재조율하게 된다. 즉 보이드의 작품은 시공간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나와 타인과의 거리 그리고 관계를 탐구하도록 이끌며, 서로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다양성을 추구한다.

작가의 이러한 주요한 기술은 이번엔 한국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영상 작품을 통해서도 확장된다. 수많은 움직이는 점들로 이루어진 영상 작품은 빛, 우주 그리고 어둠이라는 주제를 매개하는 회화 작품의 연장선이다. "영상 작품은 우주와 나의 관계, 그리고 영상 안의 암흑 물질(dark matter)은 사람들이 시공간과 관계 맺는 방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고 작가는 설명한다. 특히 영상 작품은 작가의 작품에 중요한 영감을 제공한 프랑스 철학자 에두아르 글리상(Édouard Glissant)의 '심연의 경험은 그 심연의 안과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을 다시금 강조한다. 이번 전시는 지각, 역사적 서술, 인류의 집단적 지성이라는 기존 관념에 대해 끊임없이 반문해온 작가의 작업 세계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작가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 공동체와 땅의 기억을 자각하고 공유함으로써 창조된 복합적 내러티브는 호주라는 특수한 역사를 초월해, 평소 우주와 관계 맺는 방식을 깊이 숙고해온 그의 작업에 보편성을 더한다.

작가 소개

호주 케언즈 출신인 다니엘 보이드(b. 1982)는 2005년부터 시드니를 기반으로 작업 및 전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2015년 오쿠이 엔위저(Okwui Enwezor)가 기획한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모든 세계의 미래 (All the World's Futures)》, 2017년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Hans Ulrich Obrist)와 아사드 라자(Asad Raza)가 브뤼셀의 보고시안 파운데이션에서 선보인 《몬디알리테(Mondialité)》 등 주요 전시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시드니의 가장 큰 복합문화공간인 '캐리지웍스(Carriageworks)'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2014년에는 불가리 미술상을 수상하였으며, 멜버른 건축사무소 에디션 오피스(Edition Office)와 공동으로 제작한 기념비적 조각 <For Our Country>(2019)은 ACT Architecture Awards 2020에서 4개 부문의 상을 수상하며 화제가 됐다. 그의 작품은 캔버라의 호주 내셔널 갤러리, 호바트의 타즈마니아 박물관, 멜버른의 내셔널 빅토리아 갤러리, 시드니의 뉴 사우스 웨일스 아트 갤러리 등 호주 대부분의 주요 기관을 비롯해 런던 자연사 박물관과 파리의 카디스트 컬렉션 등 세계 유수의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다니엘 보이드(b. 1982)

<Untitled (TIM)>

2021

Oil, acrylic, charcoal and archival glue on linen

213.5 x 168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다니엘 보이드(b. 1982)

<Untitled (POMOT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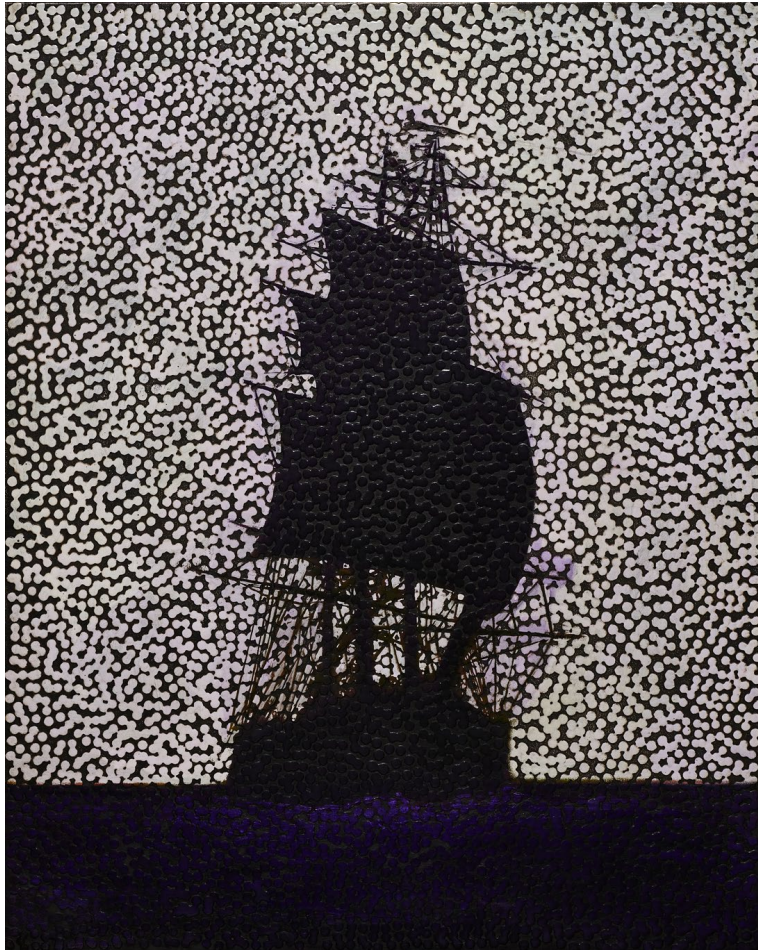
2021

Oil, acrylic and archival glue on canvas

140 x 299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다니엘 보이드(b. 1982)

<Untitled (FFITFFF)>

2021

Oil, acrylic and archival glue on canvas

76 x 61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다니엘 보이드(b. 1982)

<Untitled (TDHF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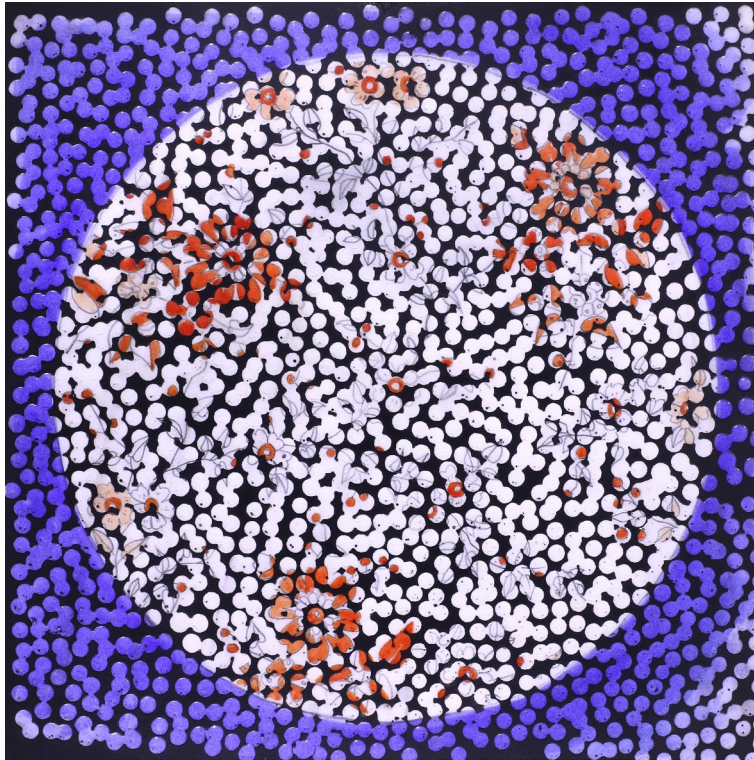
2021

Oil, acrylic, charcoal and archival glue on canvas

130 x 189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다니엘 보이드(b. 1982)

<Untitled (FDWHBFTU)>

2021

Oil, watercolor, pencil and archival glue on paper mounted to linen

33 x 33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다니엘 보이드(Daniel Boyd) 작가 프로필 이미지

사진: Joshua Morris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 이미지는 홍보목적용으로만 전시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화질 이미지는 아래 웹하드를 통해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WEBHARD.CO.KR | ID: kukjegallery | PW: kukje

KUKJE GALLERY | COMMUNICATIONS
T +82 2 3210 9821 | press@kukjegallery.com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03053 KOREA
T + 82 2 735 8449 | F + 82 2 733 4879 | WWW.KUKJEGALLERY.COM

국제갤러리, 6 월 17 일 다니엘 보이드 개인전 《보물섬(Treasure Island)》 개최